

번역투의 성격 규명을 위한 다차원적 접근: 진단에서 처방까지*/**

김 정 우
(경남대)

1. 머리말 - 번역투란 무엇인가?

번역투(翻譯套)라는 단어는 ‘번역’과 ‘투’로 나뉘는데, ‘투’라는 말이 ‘어떤 말이나 글이 일정하게 비롯처럼 굳어진 방식’을 뜻하므로 ‘번역투’란 결국 어떤 글에 원본(original text)이 아닌 번역(translated text)이라는 흔적이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텍스트상의 특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번역투’라는 용어는 대체로 어딘지 모르게 부정적인 인식 내지 평가와 결부되는 일이

* 본고는 2006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 제목에 대한 변(辯)이 필요할 듯하다. 본고는 번역투의 전반적인 양상을 논의하여 번역투의 외연을 규정하는 외적 접근 방식을 원용하여 번역투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했다. 흔히 ‘성격 규명’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바, 본고의 연구 방법이 내적인 접근 방식으로 오독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부제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처방’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본고의 한계로 인정한다.

많다. ‘번역투’에 대한 이러한 인상적 진술은 이 개념을 지칭하는 영어 단어 ‘translationese’의 접미사(-ese)가 영어의 통상적인 조어법에서 그다지 좋지 않은 어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유추할 수 있으며¹⁾, 따라서 특히 이 용어가 구체적인 번역의 결과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는 거의 치명적인 흠결로 작용하게 된다.

번역투를 누구보다 제일 먼저 그것도 자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아마도 번역서의 독자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갖는 통념은 번역투 문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번역서의 독자는 번역투를 상반되는 두 가지 방향으로 받아들인다. 즉, 이들은 번역투가 번역서의 문장이기에 당연히 만날 수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가급적 적게 눈에 뜨이기를 바란다. 이때 언어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 독자의 통념이 원천언어의 구체적인 간섭을 모르는 가운데 형성된다는 사실이다.²⁾ 우리는 여기서 번역투에 관한 상식적이지만 중요한 정보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다. 번역투란 일반적으로 목표언어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요소이고, 그 이질적 요소의 근원이 원천언어의 구조의 간섭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원천언어의 간섭은 대체로 직역³⁾의 번역 전략을 채택했을 때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러한 전략 하에서는 번역자가 번역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원천언어 텍스트의 존재를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⁴⁾

- 1) 이근희(29)에서는 이 접미사가 결합된 신조어로 ‘journalese’(신문기사투), ‘legalese’(난해한 법률문투), ‘officialese’(까다로운 관청문서투) 등을 들고 있다. 고대 차자표기의 하나인 이두(吏讀)라는 용어에 특정 사용층을 가리키는 ‘이(吏)’자가 보이는 것도 이런 점에서 시사적이다.
- 2) 특정 텍스트의 오역 여부는 번역의 결과를 원천언어와 비교하고 나아만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번역투 여부는 원천언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모국어 사용자가 직관에 의거해 판단을 내리게 된다.
- 3) 직역과 의역의 선택은 원문 텍스트의 종류, 번역의 목적, 독자층 등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일종의 번역 전략이다. 원문의 텍스트 유형이 표현적 텍스트가 아니라 정보 텍스트인 경우라든가,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번역을 하는 경우에 직역이 유효할 것이다. 직역과 의역을 혼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4) 편의상 번역투의 단위는 단어를 제외한 구 이상으로 한다. 단어(어휘)는 이미 외래어 분야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있다. 박여성(247)에서도 번역 비평이 어휘의미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문장과 문장의 연결에서 발생하는 번역

이 ‘번역투’라는 용어는 실제 연구현장에서 다소 포괄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번역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곧 번역의 정의⁵⁾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⁶⁾

1. 1. 언어적 관점

번역을 언어의 치환으로 보는 가장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번역투란 원천언어(외국어)의 제반 특성이 목표언어(모국어)에 간섭을 일으켜 목표언어의 표현에 남긴 일체의 흔적을 가리킨다. 원천언어의 간섭 혹은 영향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기도 하고, 가치중립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기도 한다.

전자의 관점에 선 번역학자는 대체로 번역투를 “원천언어의 자질에 대한 뚜렷한 의존성 탓으로 부자연스럽고 난해하거나 혹은 희극적으로까지 인식되는 목표언어의 용법을 가리키는 경멸적인 용어”라고 정의한다.⁷⁾ 그리하여 이러한

투 표현은 분석과 개선 과정을 일반화하여 설명하기가 어려우므로 논의 대상에서 배제했다. 일례로 이런 단위를 분석한 박여성(265-268)의 논의도 본 연구자의 시각으로는 목표언어를 사용하는 번역자 자신의 언어 감각 문제로 환원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5) 이하 전개하는 논의에서 번역의 정의에 대한 상론은 피하기로 한다. 여기는 번역의 정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 6) 지금까지 번역투에 관한 논의는 대단히 소략해서 박여성(2003), 김정우(2003), 이근희(2005) 정도가 눈에 뜨인다. 특히 박여성(2003)은 번역자가 자신의 번역에 대한 제1 관찰자가 되어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번역자 자신의) 서문과 비평,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른바 번역 파라디그마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번역 이론이 실무 번역 현장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번역 품질의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대전제와 아울러, 번역자의 자기 관찰에 의한 피드백이 독자에 의한 피드백보다 시차가 월등히 작고 또한 번역의 결과를 사전에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연구가 지닌 독특하고 효과적인 연구 방법론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주제를 논의하는 연구자가 동시에 번역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특수한 연구 여건 하에서 이루어진 논의로 보아야 한다. 본고는 일단 번역자의 시각을 배제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한다. 한편 번역투 논의와 관련된 학계의 연구 현황에 대해서는 박여성(244)의 각주 3)과 김정우(149-152)을 참고할 수 있다.
- 7) 이근희(29)에서재인용. 번역투를 “출발언어의 통사, 의미, 화용, 문체론적 특성이 목표언어로 재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합(不整合)”으로 본 박여성(250)도 같은

번역투 텍스트에는 목표언어에서 부적절한 은유나 부자연스러운 어순, 희귀한 전문용어 등이 등장하는 특징이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에 서면, 번역투는 목표언어의 고유한 질서를 위해 극복되어야 할 대상인 동시에 목표언어의 순정성(醇正性) 보전을 위해 순화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후자의 관점에 선 번역학자는 번역투를 “어느 언어쌍(language-pair, 원천언어와 목표언어)에서나 발견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고, 그 특징으로 어휘의 단순화와 표준화, 명료화, 보수화 등을 지적한다.⁸⁾ 요컨대 번역문을 번역문 그대로 바라보는 후자의 입장에서는 언어를 번역 언어(원전을 번역한 번역 텍스트의 언어)와 비번역 언어(원래부터 해당 언어로 쓰여진 텍스트의 언어)로 양분할 때 번역투가 후자에 나타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특징이라는 것이다. 번역투에 대해 가치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고 객관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흐름이 있다는 점이, 다음에 소개되는 다른 관점과 비교할 때 언어적 관점이 가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⁹⁾

1. 2. 문화수용적 관점

번역을 문화와 문화의 접촉 혹은 문화의 변용으로 보는 정의에 따르면, 번역투란 문화와 관련된 텍스트를 번역할 때 채택되는 번역 전략인 ‘낯설게 하기’(foreignization)¹⁰⁾의 결과로 산출된 목표언어의 표현 일체를 가리킨다. 이는

맥락이다.

- 8) *ibid.*, 31. 이는 번역투를 새로운 문체의 출현으로 보는 관점으로, 마치 통신언어를 기존 언어규범의 파괴가 아닌 새로운 사회 방언의 하나로 보는 관점과 유사하다(김정우 147). 번역투를 ‘출발언어와 목표언어 사이의 협상 과정’(박여성 250)으로 보는 견해도 후자의 관점과 동일하다. 한편 이와 같이 해당 텍스트가 번역문이기 때문에 출현하는 문체적 특징의 또 다른 예로는 ‘명시화’(explicitation)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번역문 텍스트가 원문 텍스트보다 분량이 늘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기제가 바로 이 명시화 현상이다. Mona Baker(80-84) 참고.
- 9) 나아가서 번역투를 번역 교육을 위한 생산적인 자료로 간주하는 견해도 기본적으로 후자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박여성(260)과 김정우(147)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 10) 이는 ‘외국화’라고도 하며 반대 개념은 ‘익숙하게 하기’ 혹은 ‘자국화’, ‘귀화’ 등이 라고 한다. 한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전략을 중(‘립)화’라고 한다. 이에 대해

원천언어 텍스트의 이국적 요소와 개념을 그대로 목표언어 텍스트에 구현하여 목표언어 독자들에게서 일종의 문화적 충격 효과를 기대하는 번역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목표언어의 상황이나 맥락보다 원천언어의 상황이나 맥락을 중시하고, 그 내용이 주로 문화적 요소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는 문화수용적 관점이라고 부를 수 있다.¹¹⁾

1. 3. 정치역학적 관점

번역을 일종의 정치 행위, 곧 정치적 지배와 피지배 현상으로 보는 정의에 따르면, 번역투란 수직번역의 결과로 산출된 목표언어의 내용과 표현 일체를 가리킨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남아메리카에서 활동한 제3세계 작가들은 번역투를 수직번역의 결과로 보고, 적극적인 극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직접 식민지 경험의 폐해를 겪은 이들은 번역 과정 자체를 강대국이 자기네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정치적 매개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모국어 중심의 번역 방식을 선호한다.¹²⁾ 수직번역에 대한 이들 제3 세계 작가들의 논의는 번역(강대국의 언어→자국어)을 통한 강대국 지배 이데올로기의 침투와 방어를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그러한 번역 행위의 결과로 번역투 표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역학적 관점 역시 번역투에 접근하는 관점의 하나이다.

본고는 이상의 세 가지 관점 가운데서 언어적 관점에 입각해서, 번역투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본고는 번역투 자료에 대해 일차적으로 가치중립적으로 접근하되, 논의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자료는 극복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수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¹³⁾

서는 김효중(1998)을 참고할 수 있다.

- 11) 장민호(2004)에서 이러한 관점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 12) 이러한 관점에서 번역투를 다루는 논의는 원영희(2002)와 Dougals Robinson(1997)이 대표적이다.
- 13) 이에 대한 논의는 제5장에서 다루어진다.

2. 번역투의 발생 요인

번역투의 발생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번역자를 둘러싼 제반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할 때 발견되는 언어 외적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번역자의 심리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할 때 발견되는 언어 내적 요인이다.

우선 언어 외적 요인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어가 외국어의 간섭을 받아온 역사가 짧지 않다는 점이다. 고대로부터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중국어(한문)의 간섭을 통해 한문 번역투가 다량으로 우리 국어에 생성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훈민정음이 창제된 15세기에 꽃을 피운 언해(諺解)라는 번역 양식은 한문 번역투의 생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¹⁴⁾ 이어서 개화기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일본어 번역투가 역시 적잖게 우리 국어에 생성되었다. 이때 일본어는 우리말에 직접적으로 흔적¹⁵⁾을 남기기도 했지만, 영어의 일본어 번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흔적¹⁶⁾을 남기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해방 이후에 미국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우리 국어에 대한 영어의 영향력 역시 강해졌다. 이로 인한 번역투의 생성은 현재 우리 국어의 사용자인 우리 스스로 체험하고 있는 바이다.¹⁷⁾

다음으로 언어 내적 요인을 미시적으로 조사해 보면 두 가지 상반된 발생 경로를 갖는데, 번역자가 의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전자는 번역

14) 이에 대한 개략적인 논의는 김정우(251-254)를 참고할 수 있다.

15) 일례로 수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라’에 나타나는 타동사 ‘만족하다’의 용법을 들 수 있다. 국어에서 ‘만족하다’는 자동사로만 사용된다. 『새국어생활』 1권 1호(4-22) “좌담/ 국립국어연구원이 세워야 할 좌표” 참고.

16) 송민(1988), 김광혜(1995), 정광(1995) 참고. 실제로 오늘날 논의되는 영어 번역투의 상당 부분은 역사적으로 볼 때, 직접적으로 영어에서 온 것이라기보다 일본어 중역에서 온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추정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첫째는 일본의 영화(英和)사전을 저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한 사전인데, 최초의 영한사전은 일본 사전의 한자를 그대로 옮겨 싣고 일본어 토만 국어로 옮기는 정도였다고 한다. 둘째는 일본의 영어 참고서를 모델로 제작된 중학교나 고등학교용 영어 참고서이다.

17) 이 밖에도 영어 교육과 매스컴의 부정적 영향 등도 꼽을 수 있지만, 학문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자가 원문 외국어의 구조를 의도적으로 번역 작업에서 재현하는 경우이고¹⁸⁾, 후자는 다시 두 부류로 나뉘는데 번역투의 발생과 존재를 알면서도 다른 대안의 부재로 어쩔 수 없이 번역투 문장을 산출하는 반(半)의식적인 경우와, 말 그대로 번역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번역투 문장이 산출되는 무의식적인 경우이다. 이들은 각각 의도적인 번역투 및 무의도·반의식적 번역투¹⁹⁾와 무의도·무의식적 번역투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서 반의식적 번역투와 무의식적 번역투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번역가는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번역가도 모국어로 글을 쓰는 작가이기 때문이다.

3. 번역투의 파급 효과

3. 1. 부정적 측면

번역서를 읽는 독자의 관점에서 보면, 번역투의 영향은 일단 가독성의 이상(異狀)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물론 친숙한 모국어 구조의 왜곡에서 비롯된다. 낯선 구조란 문자 그대로 신선감을 음미하기에 앞서 일단은 이를 해독하는 고통의 체험을 강요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번역투의 부정적인 영향은 번역투로 생성된 기형적 표현

18) 의도적인 번역투는 외국어 학습에서 독해 연습을 위해 외국어 텍스트를 해석하는 경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지만, 전문가의 번역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번역 소설 독자들이 목표언어의 문화권과 일치하는 번역보다 오히려 원천언어의 문화권에 어울리는 번역을 선호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런 경우에 번역자는 외국 문화 지향적인 독자들의 성향에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번역투를 산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민호(43) 참고.

19) 언뜻 생각하면 예컨대 ‘knife’를 ‘칼’로 옮기면 될 듯하지만, 이 말이 레스토랑에서 사용된다면 외래어나 외국어의 ‘순화’라는 명제가 조금은 과하게 느껴진다. 이는 물론 번역자 개인이 가진 언어 사용역(register)의 한계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목표언어 사용역의 빈칸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무의도’라는 단어는 아직 사전에 올라 있지 않지만, ‘의도’의 반의어로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익명의 심사자 지적)

이 모국어에 존재하는 다양한 표현 기회를 원천봉쇄해 버린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흔히 사용되는 접속 표현의 관용구 ‘as soon as’는 거의 모든 영한 사전과 영어 참고서에 ‘...하자마자’로 소개되어 있는데, 영문 텍스트를 대할 때마다 이 구문을 ‘...하자마자’로 옮기게 되면 주어진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어 번역자의 창의성이 발휘될 여지가 영영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이다. 이 구문은 ‘...하기가 무섭게’, ‘...하는 것과 동시에’, ‘...하려는 찰나에’, ‘...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등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다채로운 표현이 가능하다.²⁰⁾ 사실, 앞서(1.1 절) 언급한 “어휘의 단순화와 표준화, 명료화, 보수화”도 이와 같은 번역투의 부정적인 영향을 학술적으로 포장한 진술에 불과하다.

번역의 품질을 평가하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번역투의 존재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번역투 표현이 많을수록 ‘ 좋지 않은’ 번역이고 ‘ 개선의 여지가 많은’ 번역으로 평가될 확률이 높다. 이는 초보 번역가일수록 번역투의 발생 빈도가 높고 전문 번역가일수록 그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조사 결과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²¹⁾

3. 2. 긍정적 측면

모국어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번역투가 간혹 목표언어의 어휘와 구문을 풍부하게 채워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²²⁾ 이 점을 고려하면, 굳이 우리가 번역투에 대해 지나친 경계심을 보일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번역투가 목표언어의 언어 사정을 감안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

20) 이는 비유컨대 마치 다양한 종이 사라지고 외래종인 블루길과 황소개구리만 남은 연못 생태계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런 양상은 물론 건강한 생태계의 모습과 거리가 있다.

21) 전문 번역가의 번역을 관찰한 이근희(2005b 171-190)에서는 전치사 ‘by’가 포함된 성경 구절이 단 한 차례도 이른바 ‘번역투’로 예상될 수 있는 모습을 띠고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22) 이러한 관점은 “(번역투란) 크게 다른 두 언어의 매개라는 과업에 부응하여 나온 것이니, 서로 맞지 않는 두 개의 통로를 조화시켜 정보와 지식이 매끄럽게 흐르도록 만드는 도관 노릇을 한다.”고 한 북거일(124)의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지나치게 느슨한 세계시민주의적 발상으로 보인다. 언어간의 갈등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고 ‘무자비하기’ 때문이다.

만큼 간단히 넘길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받아들이는 쪽에서 모국어에 대해 확고한 가치관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핵심은 번역투가 모국어의 ‘우연한 빈칸’(accidental gap)을 채워주는 경우에만 그 긍정적 측면을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있는 모국어의 표현 수단이 새로 발생된 모종의 표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이를 번역투가 대신해서 채워준다면 이러한 경우가 바로 번역투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에 해당한다. 이때 번역투가 채워준 빈칸은 모국어에 우연한 빈칸으로 존재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모국어의 여하한 표현 수단과도 맞서지 않고 공존할 수 있다.²³⁾ 오늘날 우리가 전형적인 영어 구문으로 알고 있는 관용구 ‘it goes without saying’ 등도 사실 프랑스어 구문의 단어 대 단어 모방 번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²⁴⁾

한편 번역투 자료는 번역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부정의 부정 이 긍정이고, 따라서 번역투가 가진 역기능을 순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인 셈이다. 번역투의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를 자연스러운 모국어 문장으로 수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된다면, 이는 최소한 무의식적인 번역투의 산출을 막는 동시에 번역 수준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다.²⁵⁾

4. 번역투의 발현 양상

이론상 번역투는 단어 이상의 언어 단위에 걸쳐 두루 나타날 수 있다. 이를 큰 단위부터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⁶⁾

- 23) 여기서 ‘빈칸’이란 원칙적으로 원천언어 표현과 등가인 표현이 목표언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반대로 모국어에 해당 번역투 표현과 등가(역동적 등가 포함)인 표현이 있다면 이는 극복의 대상이 된다.
- 24) *Language*, by Bloomfield(457) 참고. 이 밖에 ‘a marriage of convenience(정략 결혼), I've told him I don't know how many times(몇 번인지 모를 정도로 그 사람한테 말했다)’ 등도 이른바 ‘gallicism’의 사례로 제시되어 있다.
- 25)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논의로는 박여성(2003)이 대표적이다.
- 26) 아래 예문의 출처는 김정우(2003)에 표시되어 있다. 예문이 중복되어 언급된 데 대

4. 1. 구문 형식과 관련된 번역투

국어에 전통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거나 대단히 어색하게 받아들여지는 구문 형식이 영어 구문의 영향으로 나타난 아래 용례를 검토해 보자.

- (1) 사랑하는 처자를 가진 가장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
- (2) 신정부는 종교 문제에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황찬호 48)

위의 용례 (1)과 (2)에서는 영어의 전형적인 구문 형식, 즉 소유 구문을 나타내는 동사 ‘have’의 흔적이 느껴지고, (2)에서는 ‘It is expected that...’ 정도의 구문이 머릿속에 그려진다.²⁷⁾ (1)은 ‘사랑하는 처자가 있는 가장은’²⁸⁾ 정도로 고칠 수 있지만, (2)는 구문 형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쉽게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능동문으로 고칠 경우에는 화제가 드러나지 않아서 만족스럽지 않다. 앞서 보았듯이 무의도적·반의식적 번역투로 생각된다.

- (3) 수업에서의 나의 발표는
- (4) 문학 작품의 특성과 문학 작품 읽기에서의 주의점을 아래 표에 정리해 보자.

위의 용례 (3)과 (4)에서는 무리한 명사화(nominalization)의 흔적이 엿보인다. 이는 전치사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영문을 우리말로 옮길 때 흔히 만나게 되는 번역투이다.²⁹⁾

한 양해를 구한다. 여기는 번역투의 발현 양상을 다루는 자리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선한 표현을 본문에 따로 넣지 않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번역투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원문과의 비교를 거쳐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므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문을 밝히지 않았다.

27) 황찬호(48)에 비슷한 유형이 다수 제시되어 있다. It is thought/ analyzed/ believed/ observed/ pointed/ reported/ admitted/ recognized that 등.

28) ‘처자가 딸린 가장’도 무난하다.

29) 이런 직역투 구문이 발생하는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전치사구를 번역하고

- (5) 합부로 약속을 하지 말 것을 충고한다. (황찬호 51)
- (6) 사후에 신의 보상이 있음을 생각하라고 권한다. (황찬호 51)

위의 용례 (5)와 (6)은 영어의 부정사와 동명사 구문 형식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것’과 ‘-음’ 명사형이 국어 고유의 어법과 다르다. 다음에 제시하는 용례도 영어의 특정 구문 형식이 연상되는 경우이다.³⁰⁾

- (7) 수준 높은 말솜씨를 가질 수 있게 된다. (to have the mastery of language)
- (8) 잘못된 정보도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to need attention)

다음은 영어의 수동태 구문 형식이 그대로 전이된 경우로, 행위자를 표시하는 ‘-에 의해’라는 어구에 영어식 수동 구문의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우리말에서는 능동 형식으로 표현하거나 그냥 여격조사인 ‘-에게(한테)’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³¹⁾

- (9) 아스텍개미들에 의해 처참하게 죽는 어느 침입자 개미
- (10) 동네 사람들에 의해 하나의 골치 아픈 두통거리로 발견되었다.
- (11) 미군에 의해 돌려받을 땅이 백만 평에 이른다. (이근희 103)

나서 이 어구(국어에서는 부사구임)에 관형격조사 ‘-의’를 첨가하고 그 다음에 수식을 받는 명사를 옮겨주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 가독성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관형어 + 체언(명사)’라는 국어의 통사 질서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 30) 관용구의 번역에서 특히 직역투가 적잖게 발견되는 원인은 주로 영한 사전에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재호(2000)를 참고할 수 있다.
- 31) 흔히 수동태 구문의 번역투는 능동문 형식으로 개선된다고 하지만, 항상 그런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책임성의 회피’와 같은 수동태의 용법은 행위자를 절대 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인정(135-137) 참고.

4. 2. 굴절 형식과 관련된 번역투

성(gender), 수(number), 격(case)의 굴절을 특징으로 하는 영어와 달리, 국어에서는 그러한 굴절이 일어나지 않는다. 수의 경우를 보자.

- (12) 감탄사들은 문장 속의 다른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 (13) 그 곳에는 커다란 돌들을 쌓아 만든 화덕이 놓여 있었다.

우리말에서는 굳이 수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경우에 명사를 그냥 단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의 용례 (12)와 (13)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다음의 용례 (14)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여기서는 ‘-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³²⁾

- (14) 땅 위에 흩어진 조약돌들이 머릿속에 자꾸 떠올랐습니다.

4. 3. 전치사구와 관련된 번역투

영어의 전치사구가 우리말 문장에 전이된 용례는 상당히 다양하고, 양적으로도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 (15) 그 사람으로부터 잘잘못을 들은 다음, (from)
- (16) 생물학적 목적이 없는 웃음의 유일한 기능은 '긴장으로부터의 해방'이다. (from)
- (17)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변형의 멋도 선보이고, (through)
- (18) 제일 긴 그 다리가 폭격에 의해 아깝게 끊어진 뒤로는 (by)

위의 용례는 각각 ‘...에게서’, ‘...에서 벗어나는’, ‘...에’, ‘...으로’ 등으로 개설했을 수 있다. 다음 (19)의 밑줄 친 부분은 영어의 전치사 ‘in’이 이끄는 동명사

32) 복수 표지 ‘-들’을 없애고 ‘흩어진’ 앞에 ‘여기저기’ 정도의 어구를 넣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다.

구문이 연상되는 어구인데, 동명사구를 해체하여 ‘의사소통을 할 때, 전혀 ~’처럼 절로 풀어주면 자연스러워진다.

(19)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전혀 후각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다음 (20)의 밑줄 친 부분은 영어의 전치사 ‘to’가 개재된 구문을 번역한 느낌이 짙는데, 오히려 간단한 관형격조사를 이용해서 ‘삶의 지혜를 ~처럼 처리할 수 있다.

(20) 삶에 대한 지혜를 얻기도 하였다.

4. 4. 문장부호

영어에서 흔히 사용되는 문장부호인 줄표(dash)와 쌍점(colon, semi-colon)은 우리말 문어에도 있는 문장부호이지만 그 용법은 사뭇 다르다. 우리말 문어에서 쓰는 영어에 비해 이들 문장부호가 문장에서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는 편이 낫다. 다음 예문은 영어에서 흔히 사용되는 줄표가 들어 있는데, 읽기도 불편하고 우리말의 어법에도 맞지 않는다. 줄표로 삽입된 양보 표현의 어구를 앞으로 돌리고 문장을 다시 쓰는 어순 재배치가 필요하다.³³⁾

(21) 고통 뒤에 찾아오는 정적—비록 순간에 그친다 하더라도—은 귀중한 체험이다.

33) 어순을 바꾸지 않고, 부호만 없앤 문장, 곧 ‘고통 뒤에 찾아오는 정적은, 비록 순간에 그친다 하더라도, 중요한 체험이다.’도 어색하지 않게 읽힌다. 이는 한국어에서 종속접속의 경우에는 종속절이 주절을 분리하고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1)처럼 체언(‘정적-’)과 조사(‘-은’)를 분리한 처리는 곤란하다. 물론 ‘비록 순간에 그친다 하더라도, 고통 뒤에 찾아오는 정적은 중요한 체험이다.’가 가장 자연스럽다.

5. 번역투의 극복과 수용

이와 같은 번역투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는 번역투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소극적인 접근이고, 둘째는 번역투를 우리말의 구조에 편입시켜 우리말의 일부로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접근이다.³⁴⁾

5. 1. 소극적 극복 방안

번역투의 확산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모국어를 지키려는 번역가의 의식이 확고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조건반사적인 번역 작업 방식을 지양하고, 항상 문맥을 고려한 번역을 내놓아야 한다. 양적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번역투 자료가 전치사와 관련된 구문이라는 것은 아직도 조건반사적인 번역 작업을 수행하는 번역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는 외국어와 모국어의 문법 사항에 관한 대조언어학적 지식의 함양으로 극복될 수 있다.

5. 2. 적극적 수용 방안

번역투는 모국어의 구조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영어의 ‘be noteworthy of’ 구문의 일본어 중역으로 알려진 ‘주목에 값하다’ 정도의 번역은 유사 구문의 존재³⁵⁾로 봐서 우리말의 기본 구조에 그다지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순차번역 기법의 활용도 일정 부분 번역투의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³⁶⁾ 다음은 외신 기사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구문 형식이다. 이

34) ‘소극적’과 ‘적극적’이라는 용어는 번역투를 대하는 번역자의 태도를 기준으로 필자가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들 수식어를 삭제해도 논지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35) ‘꼴값-하다’ 정도의 표현도 가능하고, ‘값-하다’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이다. 물론 ‘주목할 만하다’ 혹은 ‘주목을 받을 만하다’ 등 유사 표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36) 성백환(2003) 참고. 이는 기본적으로 원천언어의 구조를 사고 단위로 재구성해서 옮기는 방식이다. 이 밖에 번역투의 극복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번역 매

구문의 형식을 보존한 상태로 우리말로 옮기게 되면 주어와 술어가 지나치게 멀어지는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 (22) It is reported that (보도에 따르면)
- (23) Bill Gates claimed that (빌 게이츠의 주장은)

5. 3. 사례 검토

여기서는 번역투로 생각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극복 과정과 결과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다음 자료는 인터넷 사이트의 국제면 기사와 주간 교양지에서 각각 뽑은 문장인데³⁷⁾, 조금만 신경을 쓰면 번역투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다. (번역투로 생각되는 어구를 밑줄로 표시하고, 괄호 안에 이를 개선한 어구를 보이기로 한다. 개선된 문장은 전문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지만, 지면 관계상 관련된 부분만 제시한 것이다. 필요한 설명은 각주로 대신한다.)

- (24) 뉴욕타임스는 맥머처럼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 이를 상징하는 반지를 낀 청소년이 수십만 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절제운동의 일환으로 보급되고 있는 순결 반지가 점점 더 주류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순결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 (25) 밀러 대사는 북한 여성이 북으로 송환될 경우 이들 여성은 최소 5년 이상 구금되며, 심지어 사형에 처할 가능성도 있어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여성이 ... 송환하지 말도록)
- (26) 동양 고유의 풍수사상이 적용된 옛집은 단순한 건물 이상의 가치를 지

뉴얼의 수립은 번역자에게 매우 중요한 작업 지침이 될 수 있다.

37) 앞의 10개는 2005년 12월 10일 다음(Daum) 사이트에서 순서대로 뽑고, 나머지 10개는 『뉴스위크』 한국판(2006년 3월 15/22일자)에서 뽑았다. 여기서 자료를 추출한 이유는 이들 매체가 번역의 현장과 가깝다는 사실에 있다. 자료 수집과 분석의 목적은 오로지 객관적인 연구를 위한 것이지만, 혹여 관계자에게 누가 될까 염려스럽다. 번역투의 인지와 개선된 표현에 대한 직관은 화자마다 다르므로 본 연구자의 직관이 오류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이 자료의 번역과 관련된 관계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한다.

니고 있다고 서구 부유층은 믿고 있다.³⁸⁾ (서구 부유층의 믿음은...(중략) 옛집이 ... 있다는 것이다)

- (27) 조사에 참가한 북아일랜드 출신 소아과 의사 니켈 윌리엄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현실을 들여다보고 정부 대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스스로 깨닫는 것이라고 지적했다.³⁹⁾ (... 윌리엄스는 정부가 현실을 들여다보고... 깨닫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28) 얼마나 많은 중국산 짝퉁 저명 브랜드가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⁴⁰⁾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는)
- (29) 외국의 한 미디어 분석 사이트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켓 사진들과 사우디에서 판매되는 사진들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비교 사진들을 올렸다.⁴¹⁾ (사진과 ... 사진이 ... 사진을)
- (30) 터키의 한 남자가 아내를 뺏긴 친구에게 (중략) 황당한 제안을 했다고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⁴²⁾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제안을 했다고 한다)
- (31) 힐러리는 2000년 상원의원에 선출됨으로써 ‘힐러리 브랜드’란 그녀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 백악관 탈환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전국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고 저자들은 말했다.⁴³⁾ (저자들의 말에 따르면 힐러리는 ... 선출되면서 ‘힐러리 브랜드’란 자신의 새로운 이미지를... 마련했다고 한다)
- (32) 싱가포르 당국은 포승줄로 묶어 사형수를 교수대로 호송하는 게 관례

38) 핵-끝머리 언어(head-final language)라는 한국어의 구조상, 주어와 술어의 적정 거리 유지를 위해 전체 주어(서구 부유층)를 뒤로 돌렸지만, 종속절의 주제 표시 조사 ‘은’과 주절의 주제 표시 조사 ‘은’이 중첩되어 읽기가 거북하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사고 단위의 순차번역 기법을 적용해서 다시 썼다.

39) 원문의 복잡한 안긴문장(embedding) 구조가 반영된 구문으로 보인다.

40) 과도한 진행형도 일본어의 중역에 의해 국어에 도입된 용법이다. 김광혜(1995), 정광(1995) 참고.

41) ‘들’을 전부 생략해도 무난하게 읽히지만, 마지막 ‘-들’은 조금 걸린다. ‘... 비교하는 사진 짝을 올렸다’ 정도가 어떨까 싶다.

42) 사고 단위의 순차번역을 활용해서 다시 쓴 것이다.

43) 통상 ‘by ...ing’ 구문은 ‘...함으로써’로 옮기지만 전형적인 번역투 표현이다. 우리말로는 그냥 ‘...해서/ ...하여’ 정도로 옮겨도 충분하다.

였으나 응우옌이 스스로 걸어가 교수대에 서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는 뜻을 밝힘에 따라 이를 허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⁴⁴⁾ (*알려지기로는/소식통에 따르면 포승줄로 ... 밝힘에 따라 싱가포르 당국이 이를 허용했다고 한다*)

- (33) 진보층으로부터 철군 압력을 받아온 조지 부시 행정부 내에서 구체적인 철군 검토설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라크 총선 결과와 맞물려 주목된다.⁴⁵⁾ (*진보층의 철군 압력을*)
- (34) 스키장 네 곳과 호텔 두 개를 소유한 아스펜 스키 회사가 앞으로 청정 에너지만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승인했다. (... 호텔 두 채를 소유한)⁴⁶⁾
- (35) 두바이는 70년대 초 작은 토호국 일곱 개로 구성된 아랍에미리트 연합(UAE)의 일개 소국에 불과하다.⁴⁷⁾ (... 70년대 초에 ...)
- (36) 두바이가 석유 외의 다른 분야로 다양화하는 데는 얼마 안 되는 자체 석유 매장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⁴⁸⁾ (... 다양화하고 있는 것은 ... 줄어들고 있기)
- (37) 가장 큰 장애는 러시아 당국이 자신들의 일을 외부가 간섭하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참지 못한다는 점이다.⁴⁹⁾ (*가장 큰 장애는 러시아 당국이*

44) 어법에 맞지 않는 비문이다. 원문에 안긴문장이 많아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이는데, 사고 단위 순차번역 기법의 적용이 유효하다.

45) 전치사 ‘from’의 간섭에서 비롯된 구문이다.

46) 영어로는 대상 명사 자체에 복수 표지를 붙인 ‘two hotels’가 가능하지만, 한국어에 서는 대상 명사 자체에 복수 표지를 붙이기보다 적당한 분류사(classifier)를 도입하는 구조를 선호한다.

47) 밑줄 친 어구의 위상이 모호하다. 구조에 얽매인 조사(주격, 목적격)는 생략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기타의 조사는 그렇지 못하다. 괄호 안에 보이는 ‘.에’도 구조적 조사가 아니므로 생략했을 경우에 문맥의 오독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뒤에 보이는 ‘구성된’도 ‘형성된’ 정도로 바꾸는 것이 나아 보인다.

48) 원문과 의미가 다르고, 가독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전반부를 그대로 둔다면, ‘... 다양화하는 데는 ...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었다’ 정도로 후반부를 고쳐야 한다.

49) 이 부사는 현재의 구조에서 ‘참지 못하다’를 수식하고 있다. 문맥상 ‘새삼스러운’ 것은 ‘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당국의 참지 못하는 태도’가 되어야 자연스럽다. 위치를 조정해 주어야 한다. 예문은 원문 ‘new intolerance’의 어순에 이끌린 번역으로 보이는데, 이때 ‘new’에 원문 필자의 시선이 개입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

새삼스럽게 자신들의 일을 ...)

- (39) 이유는 잉구슈 안에서의 활동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었다.⁵⁰⁾ (... 안에서 활동 허가를)
- (40) 마오쩌둥 시절 공자가 금기단어였던 비슷한 이유 때문이다. (... 금기단어였던 것과 비슷한 이유 ...)
- (41) 평판이 나쁜 정권과 친밀한 유대관계 형성의 위험성을 중국에 경고했다.⁵¹⁾ (평판이 나쁜 정권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따르는 위험성을...)
- (42) 중국이 이제 마침내 ‘가치 공백’을 메울 만한 거리를 찾았다.⁵²⁾ (... 메울 만한 논쟁거리를 ...)
- (43) 사람들도 이제는 드 빌팽이 취한 조치들과 그의 의도를 안다. (... 각종 조치와 그의 ...)

6. 맺음말

번역투라는 주제는 번역에 대한 상이한 정의에 따라 각각 언어적 관점과 문화수용적 관점 및 정치역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번역투 자료에 대해 가치중립적으로 접근하는 언어적 관점에 입각해서 논의를 진행했다. 번역투는 언어 외적 요인과 언어 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번역자의 심리적 태도를 반영하는 언어 내적 요인은 다시 의도적인 경우와

다.

- 50) 원문에 있는 전치사 ‘in’에 이끌린 무리한 명사화의 결과로 보인다. 관형격조사 ‘-의’의 존재가 없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본문 각주 29) 참고.
- 51) 원문 ‘dangers ... of forging intimate ties to regimes of ill repute’에 보이는 명사구의 무리한 직역 때문에 국어의 일반적인 어법 규칙이 깨졌다.
- 52) 국어에서 ‘거리’는 아직 자립명사로서의 용법을 확보하지 못했다. ‘무엇이 될 만한 재료’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의존명사이므로 앞에 관형어나 다른 명사가 와야 한다 (예: 불거리, 반찬거리). 원문의 ‘something’을 ‘것’으로 옮기지 않은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지만, ‘거리’의 의존성을 간과한 것이 문제였다. ‘논쟁거리’도 만족스럽지는 않다. ‘내세울거리’, ‘이념거리’ 등도 대안으로 제안해 본다.

무의도적인 경우로 나뉘고, 극복과 수용의 대상이 되는 후자는 또 다시 반의식적 번역투와 무의식적 번역투로 나뉜다. 번역투는 번역서를 읽는 독자와 번역의 품질을 평가하는 비평가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반면, 모국어 표현의 빈칸을 메워주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번역투는 구문 형식과 굴절 형식, 전치사구, 문장부호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나타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전치사구의 간섭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번역투 표현은 원칙적으로 모국어에 등가 표현이 있는 경우에 극복의 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광해. 1995. 「조망-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새국어생활』 5권 2호, 3-26, 국립국어연구원.
- 김정우. 2003a. 「국어 교과서의 외국어 번역투에 대한 종합적 고찰」, 『배달말 33』, 143-167, 배달말학회.
- _____. 2003b. 「영-한 번역과 국어의 몇 과제」, 『통번역교육연구』, 1, 5-24, 한국통번역교육학회.
- 김효중. 1998. 『번역학』, 대우학술총서 103, 서울: 민음사.
- 문 용. 2000. 「번역과 번역 문화」, 『국어생활』 21, 14-26, 국어연구소.
- 박여성. 2003. 「텍스트언어학의 입장에서 고찰한 ‘번역투’의 규명을 위한 연구-권터 그라스의 ‘양철북’과 한국어 번역본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14, 243-293,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복거일. 1998.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성백환. 2003. 「심층적 순차번역의 방법과 의의」, 『번역학연구』 4권 2호, 117-129, 한국번역학회.
- 송 민. 1988. 「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국어생활』 14, 25-34, 국어연구

소.

- 원영희. 2002. 「번역의 식민주의적 기능과 탈식민주의적 기능 -영한번역에 나타나는 대명사 ‘그’ 사용», 『번역학연구』 3권 1호, 99-123, 한국번역학회.
- 이근희. 2005a. 『영-한 번역에서의 번역투 연구』, 세종대 영문과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5b. 『이근희의 번역 산책』, 서울: 한국문화사.
- 이재호. 2000. 「영한 사전의 문제점」, 『국어문화학교(번역반)』, 86-125, 국립국어연구원(비매품).
- 장민호. 2004. 「영화번역 전략과 언어의 경제」, 『통번역교육연구』 2권 2호, 21-48, 한국통번역교육학회.
- 정 광. 1995. 「일본어투 문장 표현」, 『새국어생활』 5권 2호, 87-107, 국립국어연구원.
- 조인정. 2005. 「영한 번역의 문제점: 수동태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6권 1호, 121-142, 한국번역학회.
- 황찬호. 1988. 「외국어식 구문」, 『국어생활 14』, 46-58, 국어연구소.
- 정혜옥 역. 2002. 『번역과 제국: 포스트 식민주의 이론 해설(Translation and Empire, 1997, by Douglas Robinson)』, 서울: 동문선.
- Bloomfield, L. 1933. *Languag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Abstract]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ranslationese:

From Diagnosis to Prescription

Kim, Jeong-Woo
(Kyungnam University)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e origin and/or reason of so-called translationese expressions and suggesting the way to overcome them. The reason is discussed in three aspects: linguistic viewpoint, culture reception, and political viewpoint. This paper focused on the first viewpoint; that is, linguistic viewpoint.

The translationese expressions seem to be originated from both intra and extra linguistic factors. The former factors, reflecting the psychological process of a translator, could be divided into intentional and unintentional writing style, which in turn divided in detail into unintentional half-conscious and unintentional unconscious writing style. The translationese expressions might generally be treated as something to be overcome, but some of them, in case there is nothing equivalent to the corresponding expression in target language, as something to be accepted for the richness of target language.

The translationese expressions may appear in almost all aspects of language, ranging from the syntactic structure, morphological forms, prepositional phrases, and punctuation marks, and the intervention of prepositional phrases in target language has turned out to be outstanding. In this context, translators should have the courage to give up their habitual and mechanical attitude to work. Furthermore, their knowledge of the contrastive grammar of source and target language could be helpful to overcome translationese expressions.

The translationese expressions in principle should be overcome in case the equivalent expressions were in target language, while they should possible received and accepted by the target language readers in case the equivalent expressions were not in target language.

▶ Key Words: translationese, intentional/unintentional translationese, conscious/unconscious translationese, approval/disapproval of translationese expressions, accidental gap of target language expressions

김정우

경남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kjwn@kyungnam.ac.kr

관심분야: 번역이론, 번역사

논문투고일: 2007년 4월 29일

심사완료일: 2007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07년 6월 13일